

보도시점 : 2024. 8. 19.(월) 17:00 이후(8. 20.(화) 조간) / 배포 : 2024. 8. 19.(월)

## “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” 국토부·서울시 상호 협력 강화

- 「8.8 주택공급 확대방안」 성과 조기 도출을 위한 협의회 개최
- 서울 정비사업 37만호 속도 가속화, 공공 신축매입 SH 참여 확대 추진
- 도심 내 수요자 맞춤 주택공급, 신규택지 후보지 투기수요 선제 차단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서울특별시(시장 오세훈)는 8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「국토부-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」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.
  -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, 지난 8일 발표한 「주택공급 확대방안」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.
- 국토부와 서울시는 ‘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’이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,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으며,
  - 그 결과,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,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길 수 있었다.
  - 금일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하고,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하였다.
- 먼저, 서울시 내에서 진행 중인 37만호의 재건축·재개발 가속화를 위해,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하고,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.

- 8.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**非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**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(SH)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, 아울러 **신혼부부와 청년층**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**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**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**복합개발 사업**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.
- **그린벨트**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하고,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,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.
- 또한,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**토지거래허가구역**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고, 금융위·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“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제고, 공공주택 신축매입,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”면서,
  - “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하여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고,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”라고 밝혔다.
- 서울특별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“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”면서,
  - “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으며,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한성수 (044-201-3317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문 (044-201-3333)
담당 부서	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홍성수 (02-2133-9573)
		담당자	팀 장	김장열 (02-2133-7012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